제 8차

'교회음악의 신학적 의미' 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

한국교회음악협회
KOREAN CHURCH MUSIC ASSOCIATION

포럼 내지.indd 1 2015-11-26 오후 2:22:50

포럼 내지.indd 2 2015-11-26 오후 2:22:51

모시는 글

할렐루야!

2015년을 보내는 겨울녘에 한국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음악인들이 찬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과 기술, 그리고 정보와 자료들을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획기적합창세미나' 에서 공급 받았다면 교회음악의 기본적 태동으로부터 철학적 심미는 이 학술 포럼에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음악의 양 날개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개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찬양 음악 지도자들이 이 양 날개의 비젼을 잘 어우러지게 공급받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의 행위는 영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는 거룩함으로 성숙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학술포럼을 준비해주신 장우형 이사님과 하재송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학술포럼이 교회음악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 합니다.

2015. 11. 28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이 상 길

포럼 내지.indd 3 2015-11-26 오후 2:22:51

포럼 내지.indd 4 2015-11-26 오후 2:22:51

목 차

모시는 글 3

목 차 5

순 서 6

참여하신 분들 7

발 표 1 9

하재송 교수
- 교회음악에 대한 기독론적 이해

발 표 2 21

장우형 교수
-교회음악이 아디아포라인가?

포럼 내지.indd 5 2015-11-26 오후 2:22:51

순 서

등 록 ..... 1:50 ~ 2:00

사 회 ..... 임창은 교수

주제발표 및 질의 2:00

발표 : **하재송** 교수

- 교회음악에 대한 기독론적 이해

질의 : 양정식 교수

발표 : **장우형** 교수

- 교회음악이 아디아포라인가?

질의 : 양정식 교수

광고와 폐회 4:30

포럼 내지.indd 6 2015-11-26 오후 2:22:51

참여하신 분들

하재송 교수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B.A.)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B.M.)
-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 (M.C.M.; D.M.A.)
-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강사 및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역임
- **현,**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서현교회 협동목사
  HIM Chanmber Choir 상임지휘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교회음악학회 부회장
  한국복음주의교회음악학회 편집장

장우형 교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독일 뮌스터 대학교 음악학 박사 (부전공: 예술사회학, 신학-예전학)
- 뮌스터 대학 부키나토레스 앙상블(Buccinatores Ensemble) 상임지휘자 역임
- 뮌스터市 1200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 독일 슈트트가르트 바흐아카데미 (Bach Akademie)에서 헬무트 릴링 (Helmuth Rilling) 지휘코스 마스터 클래스
- **현,** 사회복지재단 한벗 재단이사
  한국 고음악협회 직전이사장
  한국합창연구학회 운영위원
  한국교회음악협회 연구분과위원장
  서양음악학회 운영이사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이사
  서울장신대 교양학부 교수

포럼 내지.indd 7 2015-11-26 오후 2:22:51

참여하신 분들

양정식 교수

- 클레어몬트 대학교 대학원 교회음악 박사과정 졸업(DCM: 지휘 전공)
  (Claremont Graduate Univ., Doctor of Church Music in Conducting)
- 웨스트민스터합창대학교 교회음악 석사과정 졸업(MM:작곡/지휘 전공)
  (Westminster Choir College of Rider Univ., Master of Sacred Music)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 졸업(M.Div.)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음악지도자 과정 졸업(Dip.)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B.A.)
-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B.A.)
- **현,**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앙상블(Ensemble)합창단 상임지휘자
  한국복음주의학회 교회음악학회 총무
  한국기독교학회 교회음악학회 학술분과위원장
  예배연구소 소장 및 워십리더코리아 상임 및 실행이사
  서울서초교회 협동목회자
  분당할렐루야교회 지휘자
  한국교회음악협회 추천이사

임창은 교수

-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지휘전공 졸업 (BM)
-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Texas)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MM)
- 동 대학 대학원 합창지휘 박사 (DMA)
- **현,** 한국합창연구학회 운영위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
  상명대, 강원대, 한예종, 숙명대, 총신대 출강
  춘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서울마스터즈콰이어 지휘자
  사랑의교회 영광찬양대 지휘자

포럼 내지.indd 8 2015-11-26 오후 2:22:52

발표 1

교회음악에 대한 기독론적 이해[1)]

하재송 교수 (총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교회음악이란 '교회'를 전제로 하는 음악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악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신학적 연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교회음악에 대한 연구는 신학적 연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교회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교회음악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필자는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듯이, 교회음악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기독교인의 찬양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음악의 근거이자 동기이며, 교회음악의 대상이고, 교회음악의 주제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역사와 그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이 결국 교회음악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교회음악에 대해 기독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회음악의 신학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표준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음악인의 모든 행위와 음악 활동에 대한 기준과 원리가 되신다. 그의 성육신,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영광스런 부활은 교회음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교회음악인에게 분명한 교회음악적 원리들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교회음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육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사건은 구속(救贖)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비롭고 기적적인 사건이다. 삼위(三位) 중 제2위

1) 이 글은 Choir & Organ 109-111호에 "교회음악의 신학적 이해"라는 소제목 아래 연재되었던 필자의 글들을 모아서 수정한 것이다.

포럼 내지.indd 9 2015-11-26 오후 2:22:52

이시며 "말씀"(로고스)이신 성자(聖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나신 이 사건은 초월적이며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시공간(時空間)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열심, 결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仲保者)이시며 구원의 길이 되신다. 성육신 사건의 이러한 구속사적 이해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음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육신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인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육신의 교회음악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1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말씀"에 관해 세 가지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밝혀 준다. 첫째, "말씀"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은 태초부터, 즉 영원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이 하나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다. 셋째, "말씀"의 정체에 대하여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서 "육신"(σάρξ, 살)"이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인 인간의 몸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신성(神性)과 더불어 인성(人性)을 취하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2:9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사실 예술 활동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술 활동은 성육신의 과정처럼 예술가의 생각을 육화(肉化)시키는 과정, 즉 그의 생각을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조핸슨(Calvin M. Johansson)은 그것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 예술 그 자체가 육화적(肉化的, incarnational)이다. 예술가는 지상의 물질을 취하여 창조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그의 의도를 구체화시키도록 만든다.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람의 이해를 위해 쓸모 있게 된다. 개념이 실제적인 형태를 취한다. 생각이 물질에 의해 구체화된다.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2)]

교회음악은 다른 예술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육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핸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 교회음악인은 작곡할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앙상블과 함께 음악 작품을 재창조할 때에도 구체화의 과정에 참여한다. 즉, 음악은 악보 형식으로 있을 때 비록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2) Calvin M. Johansson, Music & Ministry: A Biblical Counterpoin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4), 30.

포럼 내지.indd 10 2015-11-26 오후 2:22:52

이 연주될 때에만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주의 과정 또한 육화적이다.[3)]

이미 언급했듯이,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 빌립보서 2:6-8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증거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교회음악인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겸손에 관한 교훈을 받는다.

우선 교회음악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듯이,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다. 교회음악의 현장은 대부분의 일반 음악회에서처럼 음악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드러내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교회음악인은 자신을 비워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음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 음악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음악인들에게는 소위 음악적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스트(Harold M. Best)가 말했듯이, "모든 음악가는 위엄, 올바름, 옆으로 제쳐 두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기쁨,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태를 취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4)] 이는 음악가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교만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혹시라도 갖게 되는 음악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보다 폭 넓은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핸슨이 지적했듯이, "교회음악인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은 회중과 함께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가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때때로 그의 예술적인 상상력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포기하도록 (어떤 다른 사역자보다 더 크게) 종종 요청되기 때문이다."[5)] 즉, 교회음악인은 음악적인 수준이 낮은 회중과 함께 할 때, 음악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서로 소통하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음악적인 목표와 수준을 조정하거나 다소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회중의 음악적인 현실을 먼저 고려하라는 의미이지 그들의 음악적인 발전가능성마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교회음악인은 당연히 회중의 음악적 향상에 대한 목표와 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교회음악인은 먼저 음악적으로 회중들과 비슷한 위치로 낮아질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서부터 음악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음악인 자신의 음악적 표준보다 회중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6)]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교회음악 현장에서는 교회음악인 자신의 음악적인 목표와 그 성취가 우선시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

3) Ibid., 30-31.
4) Harold M. Best,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하재은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5), 43.
5) Johansson, Music & Ministry, 32.
6) Ibid., 33을 참고하라.

포럼 내지.indd 11 2015-11-26 오후 2:22:52

2.2.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에서 “거하시매”의 원어적 의미는 “장막을 치다” “거처하다”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33:7-11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장막”(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사신 것을 의미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약속(사 7:14; 마 1:23)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함께 함”의 원리이다. 로마서 12:15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친다. 교회음악의 실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함께 함”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회음악 현장에서 목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조핸슨은 “성육신의 교리는 음악인이 목회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7] 고 말하면서, 목회자적인 “교회음악인은 자존심을 기꺼이 제쳐둘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음악적으로 육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사역해야 한다”[8] 고 강조한다. 이것은 교회음악인이 사람들과 음악적인 수준에서 같이 됨으로써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러한 목회적 돌봄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회의 회중은 음악적으로 비전문가들이므로 교회음악 지도자는 음악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의 음악적 표현이라는 견지에서 먼저 접근해야 한다. 즉, 그들과 음악적인 입장을 함께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음악적으로도 더 나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성육신의 원리는 교회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음악이 회중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교회음악 지도자가 회중들의 생각에 늘 응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 준다.[9] 즉, 교회음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음악 지도자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회중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2.3.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본래의 하나님의 속성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 상기한 요한복음 1:14 하반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에서 보듯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성품들을 언급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증언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베스트는 이러한 성육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고 간략한 민요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되심, 영원한 성품, 속성, 절대적 순결, 불변의 탁월성, 그 어느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

7) Ibid., 32.
8) Ibid., 33.
9) Ibid., 34.

포럼 내지.indd 12 2015-11-26 오후 2:22:52

셨다"고 말한다.[10]

이러한 성육신의 원리는 교회음악에 있어서 음악적 형태는 비록 달라지더라도 본래의 음악적 고결성은 유지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예컨대, 보다 민요적인 형태나 현대의 대중적인 음악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교회음악은 그 내용과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고상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음악적인 형태가 달라진다고 음악적인 질(quality)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음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중적인 교회음악의 경우, 필자가 특별히 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찬양곡들이 의외로 많다. 일반 대중음악의 형식과 특징을 무조건 차용하여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별로 깊이가 없는 가사를 붙여 만든 수준 미달의 찬양곡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음악인은 음악을 창작하고 선곡하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음악의 질적인 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십자가이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준비하셨으며, 때가 되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요 19:17) 사람들이 거기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교회음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3.1.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낮아지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성육신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보여지듯이,[1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은 것으로서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런 죽음이었다.[12]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굴욕이며 수치이다. 위에서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낮아짐, 즉 겸손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비참한 상태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음악 현장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이다. 교회음악은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음악이어야 한다. 그것은 겸손해야 하고, 현학적(衒學的)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음악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음악이어야 한다. 또한 교회음악인은 화려한 무대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

10) Best,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43.

11) 영어 성경에는 "death--even death on a cross"(NIV) 또는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KJV)라고 번역되어 있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e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더 비참한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다.

1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3)

포럼 내지.indd 13 2015-11-26 오후 2:22:52

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롬 12:16)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에게 음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더욱 낮은 자리에서, 심지어 굴욕적인 상황에서라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음악적 자존심 같은 것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음악적 엘리트 의식 대신 종(servant)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도 음악인의 한 사람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반(反)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음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음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전 9:27).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인간적인 혈기와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 이미 언급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따라서 교회음악인이기에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음악인에게 중요한 것은 음악 이전에 신앙 인격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음악인은 자신의 음악적인 성장보다 신앙적인 성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겸손한 신앙 인격에서 진실한 신앙고백으로서의 고상한 교회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3.2.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표지이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마저 희생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본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롬 8:38-3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속죄와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골 1:20)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교회음악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다. 또한 그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해 힘쓰리." 이 찬송처럼 교회음악은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음악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조핸슨(Calvin M. Johansson)의 말처럼, 모든 음악 사역자는 그 사랑을 본받아 그의 목회적 돌봄에 맡겨진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13] 이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음악 사역과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교회음악 활동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이다. 휴스태드(Donald P. Hustad)는 말하기를, 음악 사역자에게는 "그의 음악 그룹들의 대원들에 대해 필요시 상담도 하고, 가정 또는 병원 심방도 하며, 그들이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슬픔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어 주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줄 특별한

13) Johansson, Music & Ministry, 102.

포럼 내지.indd 14 2015-11-26 오후 2:22:52

책임"[14] 이 있다고 하였다. 즉, 교회음악에 있어서는 음악보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8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음악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음악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3.3.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요 19:17) 저 죽음의 골고다로 나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소 보여 주셨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감내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며, 고통이며 아픔이고, 피흘림이며 희생인 것이다.

사실 진정한 예술 작업은 그처럼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다. 조핸슨은 말하기를, "상상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기술을 계속 훈련하고 작은 실체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산고(産苦)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장인(匠人)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15] 라고 하였다. 그만큼 창의적인 예술 창작의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조각만한 자신의 상상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산(解産)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이다. 바로 그러한 치열한 인고(忍苦)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 걸작품이라고 부르는 많은 예술 작품들이 창작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여러 예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음악에 있어서도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은 점점 힘을 잃어 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해산의 고통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가볍고 단조롭고 평범한 교회음악에 보다 익숙해져 가고 있다. 또한 일부이지만 인간적인 즐거움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상주의(sentimentalism)에 너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다지 진정성도 없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기도 하며, 음악적으로만 화려하고 듣기 좋게 치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베스트(Harold M. Best)의 지적처럼, 이렇게 "미학적인 면에서 의심스럽고, 창의적인 면에서 수준 이하"[16] 이거나, 심지어 "후안무치하고 위선적인 수준미달, 주제넘고 요란한 가장"[17] 이라고 생각되는 음악은 진정한 교회음악이라고 할 수 없다.

교회음악은 십자가 아래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조핸슨은 "십자가는 많은 교회음악의 기분 좋은 평범함 속에 있는 본래적인 자기본위의 즐거움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준다"[18] 고 말했다. 이는 십자가가 함의하고 있는 고통과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많은 교회음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음악의 작곡과 실제에 있어서 교회는 항상 쉽고 익숙한 것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19] 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음악인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수고와

---

14) Donald P. Hustad, Jubilate II: Church Music in Worship and Renewal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1993), 83-84.
15) Johansson, Music & Ministry, 103.
16) Harold M. Best, Music Through the Eyes of Faith, 하재은 역,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5), 127.
17) Ibid., 130.
18) Johansson, Music & Ministry, 103.
19) Ibid., 103에서 재인용.

포럼 내지.indd 15 2015-11-26 오후 2:22:52

희생이라는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 십자가는 "음악적 완성도에 있어서 잘 다듬어지고 힘이 있고 심지어 순전한 것으로 들려질 음악을 요구하며, 청중에게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음악을 즐기는 것보다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좌석에서 앞으로 기울이도록 요구한다."[20] 즉 교회음악은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수고와 해산의 과정을 통해 잘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을 듣는 이들 또한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없는 교회음악, 그리고 그러한 교회음악 활동은 십자가의 원리에서 거리가 먼 것이며, 그 진정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음악인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즉 해산의 수고와 희생이다. 교회음악은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의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4.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마 28:6)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하여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20)가 되셨다. 즉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골 1:18)가 되셨다.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21]을 몸소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고전 6:14; 엡 1:20).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고전 15:22) 얻게 될 것이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성도의 칭의와 중생, 그리고 최종 부활을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원인이 된다.[22]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이며,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한다. 즉 부활을 통해 인간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은 교회음악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가?

4.1. 생명이 있는 음악

미국 교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곡가 본 윌리암스(Ralph Vaughan Williams, 1872-1958)의 "The Call"(부르심)이라는 곡은 요한복음 14:6에 기초한 허버트(George Herbert, 1593-1633)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such a life as killeth death."(죽음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 생명에 관해 요한

20) Ibid., 104.

21)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22)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포럼 내지.indd 16 2015-11-26 오후 2:22:52

복음 11:25-26[23]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생명이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 이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교회음악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음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담고 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음악이라고 여겨지는 음악 중에서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 결여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적이라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음악,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은 음악, 내용이 피상적이며 복음의 핵심이 빠진 음악 등 무늬만 교회음악인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교회음악의 가치는 이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이 없는 음악은 죽은 음악이며, 교회음악으로서 가치가 없는 음악이다. 이 생명이 교회음악을 살아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음악은 이 부활의 생명력을 나타내야 한다. 생명을 담고 있으되,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음악은 교회음악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음악이 부활의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은 교회음악인들의 책임이다. 교회음악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력을 그 음악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음악을 생명력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생명력을 나타내도록 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음악 현장을 돌아보면, 생명력 없는 교회음악 연주가 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음악적으로는 화려해도 생명력이 없는 연주, 신앙적 감동과 감화가 없는 연주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한 교회음악을 과연 진정한 교회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화려하고 웅장하나 생명력이 없는 교회음악 연주보다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불려지는 투박하고 진솔한 찬송 한 곡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4.2. 한계를 넘어서는 음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이 바울의 외침은 죄악에 빠진 인간의 절망적인 절규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이라는 속박을 깨뜨린 사건이다. 부활의 생명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의 이 환희에 넘친 선언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24]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천국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부활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넘어서 희망과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한다. 조핸슨(Calvin M. Johansson)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정신을 자유하게 하고 그로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4)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선포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롬 6:8-9)

포럼 내지.indd 17 2015-11-26 오후 2:22:52

하여금 꿈꾸게 하고 그의 상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부활이다."[25] 비록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세계를 꿈꾸고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구속을 완성하고 직관, 창조성, 상상력, 독창성 등의 새로운 전망들과 모든 사람을 위한 창조적인 힘을 열어 젖히는 것은 부활이다."[26] 부활은 예술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고, 또 그러한 초현실적인 것들을 현실화시키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조핸슨은 예술 작품에 대한 부활의 의미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부활은 현재의 예술 작품들이 미지의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함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어떤 직관적이고 상상적인 국면에 의해 영감을 받도록 하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열어 놓는다."[27] 예술에 있어서 현재라는 제한을 넘어서 새롭고 더욱 완전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부활이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음악에 있어서 이러한 부활의 의미는 중요하다. 조핸슨은 이렇게 말한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함과 불멸, 초시간적임과 무제한에 관해 말한다. 음악은 이러한 속성들을 다른 예술보다 어느 정도 더 자연스럽게 다룬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것, 저 세상의 것, '천상의 음악'에 관련되기 때문이다."[28]

교회음악은 본질적으로 부활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음악의 내용은 단순히 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속음악은 사랑, 이별, 기쁨, 슬픔, 인물, 사건 등 육신적인 세상사(世上事)를 주로 다루지만, 교회음악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영혼과 영원의 세계까지 다룬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음악이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속박을 벗어나서 영혼과 영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인(動因)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 있기에 교회음악이 현세적인 영역을 넘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음악이 이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에서 떠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교회음악은 당연히 현실에 기초해야 하고, 우리의 현세적인 삶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세상적인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음악은 초월적인 세계의 요소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조핸슨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러한 구속받은 자들의 음악은 지상의 어떤 음악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말씀에 기초한 음악, 즉 이 세상의 현실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은 음악이며, 하늘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성에 의해 변형될 것이다."[29]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회음악에 있어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 먼저 성육신 사건은 "교회음악인의 태도는 겸손해야 하고, 그의 자세는 목회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교회음악인은 교회음악 현장에서 음악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회중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성육신 사건은 교훈해 준다. 또한 그것은 음악적인 고상함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도전도 준다.

---

25) Johansson, Music & Ministry, 105.
26) Ibid.
27) Ibid.
28) Ibid.
29) Ibid., 107.

포럼 내지.indd 18 2015-11-26 오후 2:22:52

그런데, 이러한 성육신 사건의 교회음악적 원리들은 사실 교회음악의 실제에 있어서 그 동안 간과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많다. 즉, 교회음악 현장에서 교회음악인들이 신앙적인 접근보다 음악적인 접근을 우선시하고 음악적인 성취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음악적 성장을 거두었을지 몰라도,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성육신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신앙적이며 교회음악적인 원리들을 교회음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교회음악이 더 이상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전 13:1)가 되지 않게 하고 기독교 신앙 원리에 기초한 견실한 교회음악이 되도록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분을 위해 이제는 내가 희생하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처럼 교회음악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나타내야 하며,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희생의 정신으로 교회음악을 만들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음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처럼 죽음까지도 이기는 생명력을 나타내야 하고, 현세적인 한계를 넘어서 미지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를 기독교 신앙으로 바라보며 그려내야 한다. 요컨대, 교회음악은 부활이 열어 놓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내지는 시도를 기쁘게 수행해야 한다. 이는 교회음악이 현실적으로 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과거나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탐색과 시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없이 교회음악이 발전할 수는 없다. 그저 과거의 것만 답습하고, 외국에서 행해지는 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은 부활의 견지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음악계에 필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력과 도전정신이며,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교회음악이 현실적인 속박과 한계를 벗어나 더욱 새롭고 풍성하고 완전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포럼 내지.indd 19 2015-11-26 오후 2:22:52

포럼 내지.indd 20 2015-11-26 오후 2:22:53

발표 2

교회음악이 아디아포라인가?

장우형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들어가는 말

구글에서 '아디아포라 디아포라'를 검색하면 146,000개의 검색결과를 보여주지만 영어를 검색언어로 설정한 후 'adiaphora diaphora'를 검색하면 고작 2,690개의 결과, 즉 54분지 1의 결과만 보여준다. 이런 검색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의 의미가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교회음악의 경우 뿐 아니라 용어자체의 쓰임새도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원래 "교회음악은 아디아포라인가?"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교회음악은 교의적인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태여 교회음악을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려는 것은 이러한 용어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개념으로서의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

대부분의 철학, 신학사전은 아디아포라는 설명하고 있지만 디아포라는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나 독일어 사전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아디아포라만 다루고 디아포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만 다루고 있다. 먼저 아디아포라를 다루는 철학, 신학, 어학사전은 아래와 같다.

Lexikon der Antike (Directmedia Berlin 1999)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1956-1962)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Schwabe Verlag Basel 1971-2007)
Evangelisches Kirchenlexikon (Directmedia Berlin 2003)
Die digitale Bibliothek der Philosophie (Directmedia Berlin 2001)
Wörterbuch Geschichte (Directmedia Berlin 2002)
Brockhaus Kleines Konversations-Lexikon (Directmedia Berlin 2001)

위의 사전들은 예외 없이 아디아포라를 스토아학파가 사용했던 원래의 의미인 "선도 악도 아니고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디아포라는 3개의 사전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그는 다

포럼 내지.indd 21 2015-11-26 오후 2:22:53

음과 같다.

Metzler Lexikon Sprache (Directmedia Berlin 2000)

DB Sonderband Lexikon: Personen, Begriff, Ereignisse (Directmedia Berlin 2003)

Meyers Gro ß es Konversations-Lexikon (1905-1909)

위의 사전들은 디아포라를 아디아포라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수사학에서 말하는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사학에서 예를 들어 "눈에 눈이 들어가니 이는 눈물인가 눈물인가?" 에서처럼 각각의 눈이 서로 다른 뜻으로 쓰였지만 발음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독일어에서는 "Wenn hinter Fliegen Fliegen fliegen, fliegen Fliegen Fliegen nach." 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Fliegen은 명사로는 '파리'이지만 동사로는 '날다'의 뜻이어서 위의 문장은 "파리 뒤에 파리가 날면 파리가 파리를 뒤쫓아 난다" 라는 뜻이 되지만 fliegen 이라는 발음은 6번이나 연속해서 나온다. 심지어 Walter Bauer 의 유명한 사전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39쪽에서는 디아포라(διαφορα)를 "the condition or state of rotting or decaying, destruction, corruption"이라고, 즉 파괴적이고 부패케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발터는 다음 항목에서 디아포라를 difference 라고 기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즉 사전들을 살펴보면 아디아포라는 원래 스토아학파에서 사용했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후에 루터란(루터파 사람들)들의 의해 제기된 "가톨릭의 예전을 받아드릴 것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설명하고 이를 교회음악에 연관되어서는 전혀 설명하는 적이 없으며, 디아포라 또한 마찬가지로 아디아포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을 뿐더러 내용 자체도 종교나 윤리학이 아닌 수사학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어에서 α(alpha)라는 접두사가 영어나 독일어에서의 un~ (~이 아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diaphora는 당연히 a/diaphora의 반대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치라는 뜻의 영어 단어 amusia 나 독일어 단어 amusie를 보더라도 이는 그리스어 ἄμουσος (amousos)에서 온 말인데 musia나 musie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아포라는 어원적인 면에서 아디아포라의 어원적 어간(word stem)이 되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수사학적인 개념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언어의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무시하고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를 서로 대비되는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겠다. 만일에 이러한 대비되는 용어가 필요했다면 "교의적이냐 아니냐" 라고 했으면 될 일이다.

루터에게는 교회음악이 아디아포라였고 칼뱅 혹은 츠빙글리에게는 디아포라였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음악에 있어 칼뱅과 츠빙글리는 대단히 비 호의적이었으며 이에 반해 루터는 비교적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루터가 적어도 20개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하였으며 요한 발터 등의 음악 동역자 들의 도움을 받아 코랄을 만들어 찬송가의 형성과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칼뱅은 예배에서 시편과 성경을 가사로 하는 단선율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며 츠빙글리는 아모스의 입장에 따라 교회에서 음악을 금지하였다. 아모스는 5장 23절에서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6장 5절에서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하였으며 8장 9절과

포럼 내지.indd 22 2015-11-26 오후 2:22:53

10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암 8:10)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결코 음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면 그 때에는 어떤 제사나 찬양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츠빙글리의 교회음악에 대한 이해는 교회 내에서 그때까지 이루어진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성경을 말 그대로 해석하여 노래를 금하려 한다면 우스갯소리로 모든 대머리는 여호와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루터가 실제로 그의 글을 통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가 남긴 글은 실로 방대하여 120권(Weimarer Lutherausgabe (WA), 120 Bände, 1883–2009 (Sonderedition 2000–2007), ISBN 3-7400-0945-4.)에 달하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어떤 글 속에서도 루터가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설명한 적은 없다. 오히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1536 초판, 라틴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ut rulla rerum externarum, quae per se sunt ἀδιαφοραι, religione coram Deo teneamur, quin eas nunc usurpare, nunc omittere indifferenter liceat.”

(Joannis Calvini, Petrus Barth, ed., Opera Selecta, Vol. I . München: Chr. Kaiser, 1926, 226쪽) [번역] 이것은 “무관심 사항들, 중요하지 않는, 또는 지엽적인 것들”(indifferent things)이라는 뜻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애받지 않고, 어떤 때에는 그것들을 이용하고, 다른 때에는 무관심하게 묵살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다.(존 칼빈,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 329 쪽 참조)[1]

이 글을 통해서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를 모두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2] 결국 루터와 칼뱅의 원문에서의 내용으로 보면 루터는 아디아포라를 언급한 적도 없으며 칼뱅은 예상과는 달리 아디아포라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아디아포라를 교회음악과 관련하여 규정지은 것은 없다. 루터의 여러 가지 글을 인용하고 칼뱅의 글 속에서 그들이 교회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추론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추론과 해석일 뿐이지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것에 더하여서 이들(루터와 칼뱅)의 교회음악에 대한 사상을 디아포라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 하겠다.[3]

---

1) 홍원표 “깔뱅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연구 (『기독교 강요』(1559)를 중심으로) 67쪽” 에서 재인용
2) ibda 83쪽
3) 대표적인 글로 김철웅의 책 추적! 마틴 루터도 CCM 사역자였는가? (2009, 예영현대문화신서 13.)를 들을 수 있다. 그의 글에서 그는 디아포라를 아무 사전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아디아포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포럼 내지.indd 23 2015-11-26 오후 2:22:53

교회음악은 아디아포라인가?

아디아포라의 사전적 의미는 "선도 악도 아니고 금지되지 않은 것"이다. 중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교의적인 의미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하였다. 쉽게 말한다면 운동화 끈을 오른쪽부터 맬 것인가? 왼쪽부터 맬 것인가? 하는 문제, 넥타이를 어떤 모양으로 맬 것인가? 고기부터 먹을 것인가? 아니면 채소부터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교의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런 대상이 과연 교회음악인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음악에서 음악의 형식이나 구조, 악기의 사용 문제 등이 이런 문제라고 보았다.

교회음악은 가사를 빼고 생각하기 힘든 분야이다. 가사를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교의적인 분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교회음악에서 가사를 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왜 교회음악에서 가사를 빼고 나머지를 판단해야 할까? 혹시 교회음악의 어떤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을까? 즉 교회음악의 어떤 부분이 비교의적인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면 결국 '그러한 교회음악'은 교회음악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음악을 전체로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을까? 20세기에 와서 두드러진 CCM의 문제를 음악적인 문제로만 치부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음악의 대상과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음악적인 부분만으로 판단 한다는 것이 혹시 너무 단순하고 위험천만한 판단의 방법은 아닐까?

만일 어느 누구가 "성경은 아디아포라이다! 즉, 교의적으로 판단 할 기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성경의 표지가 하드커버인지 가죽으로 되어있는지는 비교의적인 부분이다. 성경을 인쇄한 폰트가 어떤 폰트인지 또한 폰트의 크기가 7포인트인지 8포인트인지는 정말 비교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경이 왜 우리 손에 있는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전혀 비교의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마가복음이 독일에 전해진 많은 이야기 속에는 한 독일 수사의 삶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스페인까지 걸어가서 마가복음의 필사본을 빌려다가 독일 자신의 수도원에서 이를 손으로 베끼고 있었다. 하지만 밤낮으로 성경을 필사하던 도중 어느 날 밤에 그만 잠이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 타들어간 촛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스페인 필사본과 본인의 필사본이 모두 소실되었다. 그는 다시 스페인의 수도원을 찾아가 사실을 설명하고 마가복음의 유일본을 그 수도원에서 필사하였다. 모든 필사를 마친 수사는 자신이 필사한 마가복음을 다시 독일로 가져왔고 그 모든 일이 끝난 직후에 사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일생의 삶이 소요되기도 하였고 그가 얼마나 필사를 정성들여서 하였는가는 추측할 수 있다. 성경의 크기나 폰트의 모양을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존재자체가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회음악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교회음악을 이리저리 해체하여 각각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이런 해체가 중요하였다면 이미 성경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교회음악을 설명할 때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해도 된다." 라고 하였고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것이든지 행 할 수 없다."(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데서 머문다.)는 것이 칼뱅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식 그 중에서도 특히 성찬의식에 관한 부분이었다. 교회음악, 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성경에서 금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명한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서 교회

포럼 내지.indd 24 2015-11-26 오후 2:22:53

음악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가 상충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결론.

교회음악은 결코 가사와 음악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음악에서 음악은 결국 가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공식 찬송가에는 연주지시어(forte, mf, crescendo, cantabile 등등)가 빠져있다. 세계찬송가공회가 있어서 나라끼리 합의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연주지시어는 넣지 말아야 한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교회음악에서 음악은 따로 분리하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포럼 내지.indd 25 2015-11-26 오후 2:22:53

참고도서

사전, 문헌류:

(아래의 사전과 문헌들은 Adiaphora와 Diaphora를 찾기 위해 사용한 독일의 Digitale Bibliothek 입니다. DB는 총 300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 메인 129개만을 여기에 참고하였습니다. 즉 아래의 사전과 문헌들을 모두 참고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전 외에는 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항목이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Bd. 1: Deutsche Literatur. Von Lessing bis Kafka.

Bd. 2: Philosophie von Platon bis Nietzsche. ISBN 978-3-89853-402-4

Bd. 3: Geschichte der Philosophie. ISBN 978-3-89853-403-1

Bd. 4: Johann Wolfgang Goethe – Werke. ISBN 978-3-89853-404-8

Bd. 5: Gotthold Ephraim Lessing – Werke. ISBN 978-3-89853-405-5

Bd. 6: Theodor Fontane – Werke. ISBN 978-3-89853-406-2

Bd. 7: Heinrich Heine – Werke. ISBN 978-3-89853-907-4

Bd. 8: E. T. A. Hoffmann – Werke. ISBN 978-3-89853-408-6

Bd. 9: Walther Killy: Literaturlexikon. ISBN 978-3-89853-409-3

Bd. 10: Johann Wolfgang Goethe: Briefe - Tagebücher - Gespräche. ISBN 978-3-89853-410-9

Bd. 11: Marx/Engels – Ausgewählte Werke. ISBN 978-3-89853-411-6

Bd. 12: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3. Aufl.). Directmedia, Berlin 2004, ISBN 3-89853-412-X

Bd. 13: Gero von Wilpert: Lexikon der Weltliteratur, Directmedia, Berlin 2000, ISBN 3-89853-113-9

Bd. 14: Golo Mann: Propyläen Weltgeschichte, Directmedia, Berlin 2000, ISBN 3-89853-114-7

Bd. 15: Kurt Tucholsky: Werke, Briefe, Materialien, Directmedia, Berlin 2007, ISBN 978-3-89853-415-4

Bd. 16: Knaurs Lexikon der Symbole. ISBN 978-3-89853-416-1

Bd. 17: Wörterbuch der Mythologie. ISBN 978-3-89853-417-8

Bd. 18: Lexikon der Antike. ISBN 978-3-89853-418-5

Bd. 19: Bilderlexikon der Erotik. Universallexikon der Sittengeschichte und Sexualwissenschaft des Instituts für Sexualforschung, Wien 1928–1932, Directmedia, Berlin 2007, ISBN 978-3-86640-706-0

Bd. 20: Der Nürnberger Prozess. ISBN 978-3-89853-420-8

Bd. 21: Deutsche Einheit.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Bd. 22: Kindlers Malereilexikon Mit über 4000 Abbildungen, ISBN 978-3-89853-422-2

Bd. 23: Roland Asanger, Gerd Wenninger: Handwörterbuch Psychologie. ISBN 978-3-89853-423-9

Bd. 24: Viktor Žmegač: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ISBN 978-3-89853-424-6

Bd. 25: Enzyklopädie des Nationalsozialismus

Bd. 26: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wesens. ISBN 978-3-89853-426-0

Bd. 27: In medias res. Lexikon lateinischer Zitate und Wendungen (4. Ausgabe). ISBN 978-3-89853-227-3

Bd. 28: Albrecht Dürer: Das Gesamtwerk.

Bd. 29: Die Luther-Bibel. Originalausgabe 1545 und revidierte Fassung 1912

Bd. 30: Dichtung der Antike von Homer bis Nonnos. ISBN 978-3-89853-430-7

포럼 내지.indd 26 2015-11-26 오후 2:22:53

Bd. 31: Friedrich Nietzsche – Werke. ISBN 978-3-89853-431-4

Bd. 32: Enzyklopädie der DDR. ISBN 978-3-89853-432-1

Bd. 33: Großes Sängerlexikon. ISBN 978-3-89853-433-8

Bd. 34: Metzler Lexikon Sprache. ISBN 978-3-89853-434-5

Bd. 35: Hubert Jedin: Handbuch der Kirchengeschichte. ISBN 978-3-89853-435-2

Bd. 36: Heinz Küpper: Wörterbuch der deutschen Umgangssprache. ISBN 978-3-89853-436-9

Bd. 37: Lexikon der Weltarchitektur

Bd. 38: Brockhaus Riemann - Musiklexikon. ISBN 3-89853-438-3

Bd. 39: Deutsche Geschichte von Tag zu Tag 1918-1949. ISBN 978-3-89853-439-0

Bd. 40: Johann Christoph Adelung: Grammatisch-kritisches Wörterbuch der hochdeutschen Mundart. ISBN 978-3-89853-440-6

Bd. 41: Lexikon der Renaissance. ISBN 978-3-89853-441-3

Bd. 42: Lutz Röhrich: Lexikon der sprichwörtlichen Redensarten

Bd. 43: Lexikon der Kunst. ISBN 978-3-89853-443-7

Bd. 44: Heinrich Graetz: Geschichte der Juden.

Bd. 45: Deutsche Literatur von Frauen

Bd. 46: Der Koran. ISBN 978-3-89853-446-8

Bd. 47: Lexikon des Islam. ISBN 978-3-89853-447-5

Bd. 48: Lexikon des Buddhismus. ISBN 978-3-89853-448-2

Bd. 49: Das Dritte Reich. Daten-Bilder-Dokumente. ISBN 978-3-89853-449-9

Bd. 50: Brockhaus. Kleines Konversations-Lexikon.

Bd. 51: Hugo Friedländer: Interessante Kriminal-Prozesse.

Bd. 52: Reclams Opernlexikon. ISBN 978-3-89853-452-9

Bd. 53: Illustrierte Geschichte der Medizin.

Bd. 54: Wer war wer in der DDR?

Bd. 55: Geschichte des Altertums. ISBN 978-3-89853-455-0

Bd. 56: Archiv des deutschen Alltagsdesigns. ISBN 978-3-89853-456-7

Bd. 57: Operntexte von Monteverdi bis Strauss. ISBN 978-3-89853-457-4

Bd. 58: Max Weber – Gesammelte Werke. ISBN 978-3-89853-458-1

Bd. 59: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ISBN 978-3-89853-459-8

Bd. 60: MGG -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ISBN 978-3-89853-460-4

Bd. 61: Shakespeare: Complete Works. ISBN 978-3-89853-461-1

Bd. 62: Deutsches Sprichwörterlexikon. ISBN 978-3-89853-462-8

Bd. 63: Martin Luther – Gesammelte Werke. ISBN 978-3-89853-463-5

Bd. 64: dtv-Lexikon Theater. ISBN 978-3-89853-464-2

Bd. 65: dtv-Wörterbuch Pädagogik

Bd. 66: Der Erste Weltkrieg in deutschen Bildpostkarten. ISBN 978-3-89853-466-6

Bd. 67: Sulzer: Allgemeine Theorie der Schönen Künste. ISBN 978-3-89853-467-3

Bd. 68: Lexikon Kunsthandwerk und Design

Bd. 69: Lateinisch-Deutsch/Deutsch-Lateinisch. Ausführliches Handwörterbuch. ISBN 978-3-89853-469-7

Bd. 70: Kindlers Meisterzeichnungen aller Epochen.

포럼 내지.indd 27 2015-11-26 오후 2:22:53

Bd. 71: Lexikon Geschichte. ISBN 978-3-89853-471-0

Bd. 72: Hans Delbrück: Geschichte der Kriegskunst. ISBN 978-3-89853-472-7

Bd. 73: Taschenlexikon Religion und Theologie

Bd. 74: Wilhelm Busch: Gesammelte Werke. ISBN 978-3-89853-474-1

Bd. 75: Deutsche Lyrik von Luther bis Rilke

Bd. 76: Brehms Tierleben. ISBN 978-3-89853-476-5

Bd. 77: Karl Mays Werke. ISBN 978-3-89853-477-2

Bd. 78: Archiv der Gegenwart. Deutschland 1949 bis 1999

Bd. 79: Lexikon der Politik. ISBN 978-3-89853-479-6

Bd. 80: Hans-Jörg Uther (Hrsg.): Deutsche Märchen und Sagen. ISBN 978-3-89853-480-2

Bd. 81: Wörterbuch Kirchengeschichte. ISBN 978-3-89853-481-9

Bd. 82: Wörterbuch Archäologie

Bd. 83: Wörterbuch Psychologie

Bd. 84: Wörterbuch Synonyme. ISBN 978-3-89853-484-0

Bd. 85: Lexikon der Naturwissenschaftler. ISBN 978-3-89853-485-7

Bd. 86: Die Reden Buddhas. ISBN 978-3-89853-486-4

Bd. 87: Erzählungen aus 1001 Nacht. ISBN 978-3-89853-487-1

Bd. 88: Deutsche Literatur im Mittelalter. ISBN 978-3-89853-488-8

Bd. 89: Die Bibliothek der Weltliteratur. ISBN 978-3-89853-489-5

Bd. 90: Walter Scherf: Das Märchenlexikon. ISBN 978-3-89853-490-1

Bd. 91: Edgar Allan Poe – Werke. ISBN 978-3-89853-491-8

Bd. 92: Kaiser, Führer, Republik. Politische Postkarten vom Kaiserreich bis zur Besatzungszeit. ISBN 978-3-89853-492-5

Bd. 93: Hexen. ISBN 978-3-89853-493-2

Bd. 94: Asiatische Philosophie. Indien und China. ISBN 978-3-89853-494-9

Bd. 95: Deutsche Dramen von Hans Sachs bis Arthur Schnitzler. ISBN 978-3-89853-495-6

Bd. 96: Biblisch-historisches Handwörterbuch. ISBN 978-3-89853-496-3

Bd. 97: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ISBN 978-3-89853-497-0

Bd. 98: Evangelisches Kirchenlexikon. ISBN 978-3-89853-498-7

Bd. 99: Stefan George – Werke. ISBN 978-3-89853-499-4

Bd. 100: Meyers Großes Konversations-Lexikon. ISBN 978-3-89853-500-7

Bd. 101: Der Auschwitz-Prozess. ISBN 978-3-89853-801-5

Bd. 102: Deutsche Autobiographien. ISBN 978-3-89853-502-1

Bd. 103: Friedrich Schiller: Werke. ISBN 978-3-89853-503-8

Bd. 104: Reklame. Produktwerbung im Plakat 1890 bis 1918. ISBN 978-3-89853-504-5

Bd. 105: Jules Verne: Bekannte und unbekannte Welten. Das erzählerische Werk. ISBN 978-3-89853-505-2

Bd. 106: Vollständiges Heiligen-Lexikon. ISBN 978-3-89853-506-9

Bd. 107: Richard Wagner – Werke, Schriften und Briefe. ISBN 978-3-89853-507-6

Bd. 108: Gutes Benehmen - Anstandsbücher. ISBN 978-3-89853-508-3

Bd. 109: Handlexikon zur Militärgeschichte. ISBN 978-3-89853-509-0

Bd. 110: Hans-Jörg Uther (Hrsg.): Europäische Märchen. ISBN 978-3-89853-510-6

포럼 내지.indd 28 2015-11-26 오후 2:22:53

Bd. 111: Merkwürdige Literatur. ISBN 978-3-89853-511-3

Bd. 112: Atlas Deutsche Sprache. ISBN 978-3-89853-512-0

Bd. 113: Deutsche Komponisten von Bach bis Wagner. ISBN 978-3-89853-513-7

Bd. 114: Schotts Führer durch die Musikwelt. ISBN 978-3-89853-514-4

Bd. 115: Pierer's Universal-Lexikon. ISBN 978-3-89853-515-1

Bd. 116: Otto Lueger: Lexikon der gesamten Technik. ISBN 978-3-89853-516-8

Bd. 117: Pape: Griechisch-Deutsch. ISBN 978-3-89853-517-5

Bd. 118: Damen Conversations Lexikon. ISBN 978-3-89853-518-2

Bd. 119: Fischer Weltgeschichte. ISBN 978-3-89853-519-9

Bd. 120: Faust-Anthologie einer deutschen Legende. ISBN 978-3-89853-520-5

Bd. 121: Joachim Ringelnatz: Das Gesamtwerk. ISBN 978-3-89853-521-2

Bd. 122: Albert Einstein – Leben und Werk. ISBN 978-3-89853-522-9

Bd. 123: R. Braccini: Praktische Wörterbuch der Musik. Deutsch/Italienisch/Englisch/Französisch. ISBN 978-3-89853-523-6

Bd. 124: Atlas Namenkunde. Vor- und Familiennamen im deutschen Sprachgebiet. ISBN 978-3-89853-524-3

Bd. 125: Deutsche Literatur von Luther bis Tucholsky. Großbibliothek (DVD-Rom). ISBN 978-3-89853-525-0

Bd. 126: Das Literarische Quartett. Gesamtausgabe aller 77 Sendungen von 1988 bis 2001. ISBN 978-3-89853-526-7

Bd. 127: Klassiker des Protestantismus

Bd. 128: Émile Zola: Die Rougon-Macquart. ISBN 978-3-89853-528-1

Bd. 129: Arthur Conan Doyle: Sherlock Holmes. Zweisprachig Englisch/Deutsch. ISBN 978-3-89853-529-8

Walter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논문:

홍원표, [깔뱅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연구 –기독교강요(1559)를 중심으로]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이예숙, [마틴 루터의 관점에서 본 현대 한국 기독교 대중음악의 이해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기독교음악학 박사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2011

김원철, [아디아포라(αδ.αφορα), 스토아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철학연구」제45집, 2012

조쟁규, [존 칼빈과 칼 바르트 예정론의 해석학적 융합 가능성 탐구] 박사논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3

서적류:

김철웅 “추적! 마틴 루터도 CCM 사역자였는가?”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포럼 내지.indd 29 2015-11-26 오후 2:22:53

Memo

포럼 내지.indd 30 2015-11-26 오후 2:22:53

2015년 역대 이사장(회장) 및 임원진

	연 도	이 사 장	부 이 사 장	사 무 국 장
1 대	1951 – 1952	김 치 묵	박 학 전	윤 심 원
2 대	1952 – 1955	김 치 묵	한 인 환	김 노 현
3 대	1956 – 1957	김 치 묵	나 운 영	김 노 현
4 대	1958 – 1959	김 치 묵	한 인 환	곽 상 수
5 대	1960 – 1963	박 태 준	한 인 환	이 동 훈
6 대	1964 – 1967	박 태 준	한 인 환	구 두 회
7 대	1968 – 1969	박 태 준	한 인 환	박 재 훈
8 대	1970 – 1971	박 태 준	이 유 선	이 남 철
9 대	1972 – 1973	박 태 준	이 유 선	김 두 완
10 대	1974 – 1975	이 유 선	서 수 준	김 정 해
11 대	1976 – 1977	이 유 선	김 정 해	김 홍 경
12 대	1978 – 1979	서 수 준	구 두 회	김 홍 경
13 대	1980 – 1981	구 두 회	최 성 진	김 홍 경
14 대	1982 – 1983	최 성 진	김 정 해	김 홍 경
15 대	1984 – 1985	김 두 완	김 홍 경	황 철 익
16 대	1986 – 1987	김 두 완	김 홍 경	이 관 섭
17 대	1988 – 1989	김 홍 경	백 태 현	이 관 섭
18 대	1990 – 1991	백 태 현	이 관 섭	안 경 재
19 대	1992 – 1993	이 관 섭	윤 학 원	김 형 석
20 대	1994 – 1995	이 관 섭	윤 학 원	김 형 석
21 대	1996 – 1997	윤 학 원	김 형 석	오 진 득
22 대	1998 – 1999	윤 학 원	김형석, 전희준	오 진 득
23 대	2000 – 2001	김 형 석	전희준, 오진득	박 영 근
24 대	2002 – 2003	오 진 득	박영근, 전희준	이 수 철
25 대	2004 – 2005	오 진 득	박영근, 이수철	이 문 승
26 대	2006 – 2007	이 수 철	박 영 근	이 문 승
27 대	2008 – 2009	박 영 근	이 문 승	이 대 구
28 대	2010 – 2011	이 문 승	이 대 구	장 우 형
29 대	2012 – 2013	이 대 구	이 상 길	이 병 직
30 대	2014 – 2015	이 상 길	이 병 직	고 덕 환

2015년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회

●고　　문 : 구두회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박영근 이문승 전희준 안경재 여홍은
●직전이사장 : 이대구
●이 사 장 : 이상길 ●부이사장 : 이병직 ●사무국장 : 고덕환 ●사무차장 : 하재송
●서 무 이 사 : 임창은 ●재무이사 : 홍권옥 ●감　　사 : 박신화 이기선

●각 분과 및 위원장 : 하계대학분과(윤학원), 연구분과(장우형), 홍보분과(김동민), 역사편찬분과(이문승)

●이 사 : 강기성 강영모 강옥민 구 천 권영일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성봉 김영호 김옥자 김은석 김철륜
김회영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환 신현민 신효철 안희복 원성희 유병무 유병용 윤의중
윤태빈 윤학봉 이근엽 이동훈 이보철 이상훈 이선우 이인호 임긍수 전영혜 장우형 주성희 차영회
천인한 최원범 최훈차 홍정표 황철익 (가나다순)
김용훈 양은호 오율희 (신임이사) / 고광철 양정식 (추천이사)

●당연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학(대전) 조기용(경기남) 이광수(울산) 장철진(목포) 신동환(인천) 김 돈(영남)
박경우(순천) 김희송(안산) 박희분(청주) 오승진(광주) 모상원(여수) 황녹연(천안)

●편집 위원 : 김동민 천인한 신현민 임훈 김세호　　● 간 사 : 임은희

포럼 내지.indd 31 2015-11-26 오후 2:22:53

포럼 내지.indd 32 2015-11-26 오후 2:22:53